

## 맥체인 성경읽기 9.12

### 사무엘하 8장

1 그 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굴복시키고 그 지역을 지배했다.

2 그는 또 모압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그는 무작위로 그들 가운데 삼분의 이를 택해 처형하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살려 주었다. 이후 모압 사람은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조공을 바쳐야 했다.

3-4 다음으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가는 길에 다윗은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을 물리쳤다. 다윗은 그에게서 전차 천 대와 기병 칠천 명, 보병 이만 명을 빼앗았다. 그는 전차를 끄는 말 백 마리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의 뒷발 힘줄을 끊었다.

5-6 다마스쿠스의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 이만이천 명을 모두 죽였다. 그는 아람-다마스쿠스에 꼭두각시 정부를 세웠다. 아람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야 했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7-8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전리

품으로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닷에셀의 성읍인 데바와 베로대에서 청동을 아주 많이 빼앗았다.

9-12 다윗이 하닷에셀의 군대를 모두 쳐부수었다는 소식을 하맛 왕 도이가 들었다. 그는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닷에셀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다. 도이와 하닷에셀은 오랜 원수관계였기 때문이다. 요람은 다윗에게 은과 금과 청동을 선물로 가져왔다.

다윗 왕은 그것을 아람,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은금, 그리고 소바 왕 르흡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함께 거룩하게 구별했다.

13-14 다윗은 아람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와 승전비를 세웠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싸워 그들 만팔천 명을 죽였다. 다윗이 에돔에도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지배를 받았다. 다윗이 어디로 진군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15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다스림은 공명정대했다.

16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었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17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18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지휘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 사무엘하 9장

### 다윗과 므비보셋

1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2 마침 시바라는 사울 집안의 종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 앞으로 불러오자, 왕이 물었다.

“네가 시바냐?”

“예,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3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 싶구나.”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두 다리를 모두 접니다.”

4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5 다윗 왕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6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자신을 낮추며 예를 갖추었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대가 므비보셋인가?”

“예, 왕이시여.”

7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이 말했다.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여 뭔가 특별한 일을 네게 해주고 싶구나. 우선 네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8 므비보셋은 다윗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발을 끌며 더듬 더듬 말했다.

“제가 누구라고 왕께서 길 잃은 개와 같은 제게 관심을 두십니까?”

9-10 다윗은 곧바로 사울의 오른팔인 시바를 불러 말했다.

“사울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네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의 토지에서 일하고 농작물을 거둬들여 네 주인의 손자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여라. 네 주인의 손자 므비보셋은 이제부터 늘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열다섯 명의 아들과 스무 명의 종이 있었다.

11-12 시바가 대답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받들겠습니다.”

므비보셋은 왕족의 한 사람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먹었다. 므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제 므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13 므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

## 고린도후서 2장

1-2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문을 자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그저 얼굴을 내밀기만 해도 여러분이 난처하고 괴로운 입장에 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어찌 나를 위로하고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겠습니까?

3-4 그래서 나는 가지 않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리라 여겼던 벗들을 낙담시키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는 내게 최선인 것이 여

러분에게도 최선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써 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편지를 쓰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양피지에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눈물로 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는지 —오, 아끼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쓴 것입니다!

5-8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장본인, 곧 이 모든 고통을 안겨준 문제의 인물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이 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나 한 사람만 아니라, 몇몇 사람을 제외한 여러분 모두라는 사실을 알아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심하게 책망하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여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울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죄를 비난하기만 한다면, 그는 죄의식 속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을 쏟아부을 것을 권고합니다.

9-11 내 편지의 초점은 그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책임을 지우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를 용서하면, 나도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원한의 목록을 지니고 다닌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나도 용서하는 여러분과 행동을 함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지중에라도 사탄이 더 많은 해를 끼칠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교활한 책략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의 향기

12-14 내가 메시아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르러 보니, 이미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두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식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나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을 걱정한 나는, 그곳을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디도를 만나 여러분에 관한 든든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14-16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개선 행진에 참여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상한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피워 올리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알아봅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를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대합니다.

16-17 이것은 엄청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떠맡을 역량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타서 거리로 나가 값싸게 파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시는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할 말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전합니다.

## 에스겔 16장

### 미모에 취해 자만한 예루살렘

1-3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이여, 예루살렘이 벌인 어이없는 행각을 깨우쳐 주어라.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을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가다. 너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이고, 네 어머니는 헛 사람이다.

4-5 네가 태어난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 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목욕시켜 주지 않았다. 그날에 아무도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포대기로 감싸 주지 않았다. 너를 돌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를 따뜻이 보살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는 씻지 못한 더러운 모습 그대로 빈터에 버려졌다. 너는 버림받은 신생아였다.

6-7 바로 그때, 내가 그곳을 지나다가 비참하기 그지없는 핏덩어리인 너를 보았다. 그렇다. 위험하고 불결한 곳에 누워 있는 너를 보며 내가 말했다.

“살아라! 들판의 초목처럼 자라라!”

그러자 나의 말대로, 너는 자랐다. 키가 자라고, 가슴 봉긋하여 긴 머리 휘날리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별거벗은 채로 있었다.

8-14 내가 다시 지나다가 너를 보니, 너는 이제 사랑할 나이, 연인을 만날 나이가 되었다. 나는 너를 거두어 보살피고 옷을 입혀 주었다. 너를 보호해 주었다. 네게 사랑을

약속하고 너와 혼인 언약을 맺었다.

나 주 하나님이 네게 서약했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내가 너를 목욕시켜 네 몸의 해묵은 핏자국을 씻겨 주고,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주었다.

네게 화려한 가운을 입히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겼다. 네게 모시옷과 값비싼 옷감으로 만든 최고급 옷을 입혀 주었다. 나는 너를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몄다. 네 손목에 팔찌를 끼워 주고, 목걸이와 취옥 반지와 청보석 귀걸이와 다이아몬드 관으로 장식했다.

너는 모든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렸다. 우아한 옷을 걸치고 꿀과 기름이 곁들여진 산해진미를 즐겼다.

너는 정말이지 대단했다. 너는 여왕이었다!

세계에 이름을 알린 너는 내 장신구로 단장한 완벽한 미인, 전설적인 미인이 되었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15-16 “그러나 너는 네 미모에 취해 자만해지면서, 결국 길거리의 아무 남자나 붙들고 침실로 가는, 흔해 빠진 창녀가 되었다. 너는 네 좋은 옷들로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몸을 팔았다. 결단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 병든 영혼아!

17-19 “너는 내가 준 진귀한 보석과 금과 은을 가져다가 네 창녀집을 꾸밀 외설 조각상을 만들었다. 최고급 비단과 무명으로 네 침상을 장식하고, 거기에 나의 향유를 바르고 향을 뿌렸다. 너는 내가 마련해 준 산해진미를 —허브와 양념을 곁들인 신선한 빵과 과일을— 가져다가 네 창녀집의 별식으로 내놓았다. 네가 그렇게 했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20-21 “너는 내가 낳은 아들딸들, 나의 자녀인 그 아이들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창녀가 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더냐? 너는 살인까지 저질렀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22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역겨운 짓과 창녀짓을 벌여온 그 세월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네 유아기 때를 돌아본 적이 없었다. 별거벗은 핏덩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23-24 이 모든 악행으로도 모자라서, 너는 성읍 광장마다 보란 듯이 창녀집을 세웠다.

화가 임하리라! 네게 화가 있으리라!”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봄비는 교차로마다 보란 듯이 창녀집을 차렸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음란한 음부를 보였다.

25-27 급기야 너는 국제적으로 창녀짓을 했다. 이집트 사람들과 간통하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광란의 섹스판을 벌였다. 네 방탕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나의 진노도 커져 갔다.

결국 나는 일어나 네 지경을 축소하고 너를 적들에게 넘겨주어 물어 뜯기게 했다.

너는 아느냐? 네 방탕한 생활은 블레셋 여자들이 보고 경악할 정도였다.

28-29 너는 만족을 모르는 음욕 때문에 앗시리아 사람들과도 간통했다. 그러나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다. 너는 바빌론 사람들, 그 장사치 나라와도 간통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줄 몰랐다.”

30-31 “병든 영혼아! 이런 짓들을 벌인 너, 가히 창녀 중의 창녀다! 봄비는 교차로마다 보란 듯이 창녀집을 짓고, 동네마다 창녀촌을 세웠다. 그런데 너는 보통 창녀들과 달

리 화대를 받지 않았다.

32-34 바람난 여자들은 보통 정부(情夫)에게 선물을 받는다. 남자가 창녀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너는 오히려 정부에게 돈을 건넨다! 너는 사방에서 남자들을 돈 주고 사서 네 침실로 데려온다! 섹스의 대가로 돈을 받는 보통 창녀들과 정반대다. 그들의 호의에 감사하며 돈을 지불한다! 너는 매춘일마저 변질시켜 놓았다.”

35-38 그러므로, 창녀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문란하기 이를 데 없는 너는 아무 앞에서나 옷을 벗어 네 치부를 자랑하듯 드러내고, 음란한 우상들을 숭배하며, 아이들을 죽여 그것들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네 정부들을 모두 불러 모으리라. 내가 쾌락을 위해 이용했던 모든 자들, 내가 좋아했던 자들과 네가 혐오했던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법정에 모아 구경꾼들처럼 너를 둘러싸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벌건 대낮에, 그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발가벗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네 진상을 보게 되리라. 나는 간통죄와 살

인죄를 물어 네게 벌을 선고할 것이다. 너에게 내 진노의 맛을 보여줄 것이다!

39-41 내가 네 정부들을 다 모으고 그들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네 뻘뻘스런 창녀집과 음란한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네 옷을 찢고 네 보석을 빼앗아 너를 발가벗길 것이다.

그리고는 군중을 불러 모을 것이다. 모인 군중이 네게 돌을 던지며 너를 칼로 난도질할 것이다. 그들이 네 집을 불태울 것이다. 모든 여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

41-43 “내가 너의 창녀짓을 완전히 끝장낼 것이다. 돈을 주고 남자들을 침실로 끌어들이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제야 나의 진노가 풀리고 질투가 가라앉을 것이다.

네가 어렸을 0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런 짓들로 나를 노하게 했으니, 그 방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역겨운 짓에 방탕까지 더해졌으니, 네가 치러야 할 값이 얼마나 크겠느냐?

44-45 속담을 즐겨 사용하는 자라면 “그 어머니에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싫증내던 네

어머니의 딸이다.

또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싫증내던 네 자매 중 하나다.  
네 어머니는 헛 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46-48 네 언니는 사마리아다. 그녀는 딸들과 함께 네 북  
쪽에 살았다. 네 동생은 소돔이며, 딸들과 네 남쪽에 살았  
다.

너도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들처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역겨운 짓들을 벌이지 않았느냐?

오히려, 너는 그들을 따라잡고 추월했다! 살아있는 나 하  
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한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너와 네 딸들이 한 짓들에 비하면 네 동생 소돔과 그 딸  
들의 소행은 새 발의 피다.

49-50 네 동생 소돔은 자기 딸들과 함께 온갖 사치를 부  
리며 살았다. 오만했고, 탐욕스러웠으며, 게을렀다. 그들은  
압제받는 자와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았다. 거들먹거렸고  
추잡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잘 알 것이  
다. 내가 그들을 아주 없애 버렸다.



51-52 그리고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죄는 네 반만큼도 되지 않는다. 네 역겨운 행위들은 그녀를 훨씬 능가한다. 아 니, 네 소행에 비하면 네 두 자매는 선량해 보일 정도다!

정말 그렇다. 너에 비하면 네 자매들은 실로 성인군자들이다. 네 죄가 얼마나 그들을 능가하는지, 그들이 의인으로 보일 지경이다.

부끄럽지 않느냐? 네가 안고 살아야 할 수치다. 역사에 길이 남을 명성이 아니냐. 네 자매들의 죄를 능가하다니!

53-58 그러나 나는 소돔과 그 딸들,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을 뒤집을 것이다.

그리고 —잘 들어라— 그들과 더불어 네 운명도 그러할 것이다!

어쨌거나 너는 네 수치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다. 네 수치를 마주하고 받아들임으로, 네 두 자매에게 얼마간 위안을 줄 것이다. 네 자매들, 소돔과 그 딸들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은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 역시 그러할 것이다.

네가 거들먹거리면서 오만방자하게 동생 소돔을 깔보았던 시절을 기억하느냐? 그때는 네 악행들이 폭로되기 전이었다.

그러나 이제 네가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너는 에돔 여자

와 블레셋 여자와 주변 모든 자들에게 경멸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너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네 추악한 과거의 수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59-63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내 맹세를 하찮게 여기고 나와서 언약을 깨뜨렸으니, 나는 네가 행한대로 갚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어렸을 적 맺었던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너와 영원히 지속될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후회스러운 네 과거를 기억할 것이며, 네가 너의 두 자매, 언니와 동생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날, 참으로 참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네 딸들로 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네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고, 그제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너는 네 과거를 기억하고 그 수치를 마주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속죄를 행하고 네 모든 소행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날 너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 시편 58편

### 다윗의 시

1-2 어찌하여 나라를 이처럼 경영하느냐?  
국회에 정직한 정치인이 있더냐?  
너희는 막후에서 떠들썩하게 악을 꾸미고  
닫힌 문 뒤에서는 악마와 거래하는구나.

3-5 악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길로 간다.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내뱉으니,  
그들의 갈라진 혀에서 떨어지는 것은 독,  
치명적인 방울뱀 독.  
그들은 위협도 흘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니,  
수십 년 치 귀지가 귓속에 켜켜이 쌓인 탓이다.

6-9 하나님, 저들의 이를 박살내셔서  
이빨 없는 호랑이 신세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인생이 옆질러진 물이 되게 하시고  
모래밭의 축축한 얼룩으로 남게 하소서.  
저들이 짓밟힌 풀이 되게 하셔서  
오가는 사람의 발길에 닳아빠지게 하소서.  
저들이 달팽이 진액처럼 녹아내리게 하시고  
유산된 태아가 되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음모가 모양을 잡기 전에  
쓰레기와 함께 내던져 버리소서!

10-11 의인은 악인이 벌 받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리라.  
악인의 피를 잔에 담아내어 함께 건배하리라.  
다들 환호하며 말하리라.

“규례를 지킬 만하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 시편 59편

**다윗의 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에 감시를 붙였을 때**

1-2 나의 하나님 !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폭도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소서.  
저들의 더러운 술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저들이 보낸 청부 살인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4 무법자들이 푹푹 뭉쳐 나를 대적하고  
매복까지 하며 나를 노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에 험싸일 짓을 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거나 학대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기로 작정한 듯,  
나를 뒤쫓습니다.

4-5 깨어나셔서 직접 보소서!  
주께서는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셔서 저 악한 자들을 제거하소서.  
잔학무도한 자들이오니 봐주지 마소서.

6-7 저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늑대처럼 짖어 대며 성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성문 앞에 모두 모여  
욕설을 내지르며 단도를 뽑아 듭니다.  
자신들은 절대 잡히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8-10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저들을 비웃으십니다.  
사악한 민족들을 웃음거리로 여기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모습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때맞춰 나타나셔서  
내 원수들이 파멸하는 꼴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11-13 하나님, 내 백성이 잊지 않도록  
저들을 단번에 해치우지 마소서.  
저들을 천천히 쓰러뜨리시고 아주 서서히 해체하소서.  
비열하고 거만하게 내뱉은 저들의 온갖 말에  
스스로 걸려들게 하소서.  
중얼중얼 내뱉은 온갖 저주와 뻔뻔스런 거짓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저들을 말끔히 해치우소서! 영원히 끝장내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확실히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을 다스리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14-15 저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늑대처럼 짚어 대며 성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뼈다귀를 찾아 헤매다 먹을 것을 주는 손까지 물어뜯습니다.

16-17 그러나 나는 주님의 용맹을 노래하고  
새벽에 주님의 과분한 선물을 큰소리로 이야기하렵니다.  
주님은 나에게 더없이 안전한 장소,  
좋은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모습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든든한 사랑이신 하나님!